



한 방 치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학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법이 개정되며 교차 고용이 가능해졌고 한의학 치료와 양의학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그 효용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양한방의 협진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장점을 취하며 환자 증상에 맞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전주지역에서는 '전주수한방병원'이 개인 한방병원으로는 최초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양·한방의 협진을 운영한다.



레이저치료기

관절질환 · 재활 · 항암치료에 '특화'

전주수한방병원은 지난 2010년 개원한 이래 양·한방 협진으로 척추 및 관절질환, 교통사고 환자, 재활치료, 그리고 항암치료 등에 특화 된 병원으로 성장해 왔다.

전주수한방병원 임선영 원장은 "진단이나 치료적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장점을 취할 수 있게 돼 통합의학 치료 가능해졌다"며 "CT나 MRI 같은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며 경각기능검사 등도 진행이 가능해 정확한 진단과 최상의 진료 프로토콜이 가능해진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질병의 치료를 넘어 몸 전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치유, 진정한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수한방병원이 추구하는 병원의 철학이자 약속"이라며 "병원을 찾으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섬세한 서비스가 주는 감동을 마음으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방병원 특성 상 비수술적 치료요법을 선호하는 환자가 많다. 한방에서는 수술보다는 증상의 제거를 목표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중점을 맞춰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통합적인 진료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된다.

임 원장은 "국소적인 증상 병변에만 중점을 맞추게 되면 통증 재발이 쉬워질 수 있다"며 "한방에서는 통증이 야기된 원인을 '균형'이라는 포커스에 맞춰 찾아나감으로서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항암치료 부작용을 호소하는 안환자도 많이 늘었다.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두통이나 식욕감퇴, 탈모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주수한방병원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대증치료를 통해 면역력 강화로 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주수한방병원에서는 자생적 치료를 목적으로 편백나무 병실과 수치료실, 온열치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편백나무를 이용해 피트니스의 신경 안정 효과와 항균 작용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약재를 달여 반신욕을 하는 수치료실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개인실 위주의 병실을 운영하며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안락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임 원장은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을 통해 한



임선영 원장

임선영 원장 "선별적으로 장점을 취하며 통합의학 치료 가능해져 몸 전체 바라보는 근본적 치유 환자에 대한 존중·배려가 병원이 추구하는 철학과 약속"

자생적 치료 목적으로 '편백나무 병실' 등 시설 구비 한약재 달여 반신욕 하는 '수치료실'도 큰 효과

임 원장 "식단·후유증 치료도 자연주의 치료 보강 분야로 꾸준히 연구할 것"

방의 과학화, 대중화를 이루고 한국인의 질병에 맞는 최적의 약재와 치료법을 찾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 원장은 "인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면역력이 상승해 자생적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온열치료실의 경우 현재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치료를 국소가 아닌 신체 전반에 조사함으로써 체온 면역을 활성화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척추 관절 환자, 교통사고 환자, 재활 치료 환자 등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다양한 치료법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단이나 후유증 치료 등에 대해 한방 뿐 아니라 자연주의 치료 보강 분야로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한방병원이니 만큼 앞으로도 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통합의학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의 증상 개선과 완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온열치료실



전주수한방병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앞장

어르신들의 큰 힘 보람 · 기쁨도 두배

전주수한방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와의 결연을 맺고 매월 1~2회 무료 한방진료 봉사과 더불어 구급약품(소화제, 파스) 등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공경에 앞장서 왔다.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는 올해로 7년째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효사랑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여름에는 전주수한방병원의 후원으로 전주 지역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선풍기' 100대를 선물해 지역사회에 시원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23일에는 연꽃마을 자비원 정인스님과 함께 전주 르윈호텔에서 지역 독거 어르신 150여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임선영 원장은 직접 고혈압과 당뇨 체크 등 한방의료 건강상담 봉사활동을 펼치며, 3,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임 원장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전주시장장 및 도지사상, 국회의원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 원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어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향해 언제나 두 팔을 벌려 봉사와 환원의 기회를 행복하게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수술재활장비



병원 내 재활치료시설